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사51:10)

◎ 행동지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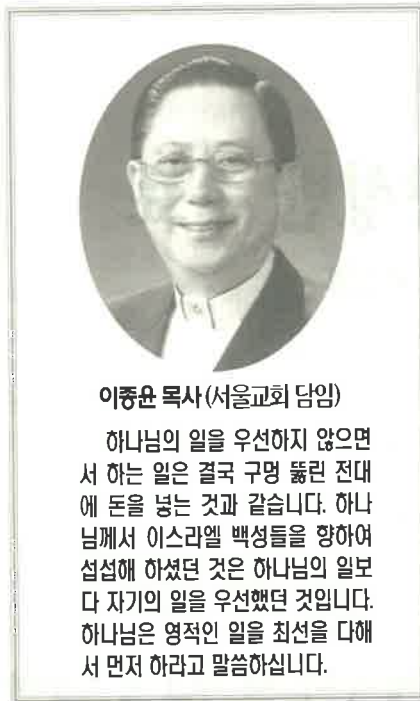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ichurch.or.kr

영혼의양식 - 소신지서 강해

## 하나님의 남은 자

(약개 1장 : 1 - 15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으면서 하는 일은 결국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섭섭해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는 결국 전쟁사입니다. 역사는 핵심이 되는 사건의 연결을 말하며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순간의 사건을 서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전 520년은 세속사에서 보면 흘러가는 한 시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 때 하나님의 사람 학개를 보내신 시간입니다.

그 때로부터 16년 전인 주전 536년에 파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로부터 유다의 총독으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임명을 받고 두 사람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돌무더기와 잡초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변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봄에 성전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중 가장 심한 나라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자신들에게 결정적 위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 나라의 방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파사의 고레스 왕이 죽고 후임에 오른 아하수에로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건축이 중단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일에 힘을 쏟고 무너진 성전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지 못한 채 15년이 흘렀고, 급기야는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어 성전 재건을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학개의 이름이 Festival(잔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평정날에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영광은 간곳이없고 인구도 줄고 성전은 폐허가 되었으면 그들에게는 회복의 과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 1. 예언의 대상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12절).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이 귀환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곳이 좋아서 돌아오지 않아 추방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파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상은 남은 자입니다. 이들은 전에 유다나 이스라엘 땅에 살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끌려 간 백성은 죄인이지만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특별한 헌신과 열심에 있는 구별된 자들로서 이들의 계열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의 맥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만한 바른 장소,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우선 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주춧돌만

놓고 다른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민족적 긍지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남은 자로서 무엇보다 바른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른 이유를 가지고 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의 열심이 점점 희미해져갔습니다. 그들은 결코 불신자는 아니었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4-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은 이웃 나라들의 방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른 핑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2절).

백성들은 성전 지을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일에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며 사는 불쌍한 존재는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학개는 행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하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6절).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지 않으면서 하는 일은 결국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섭섭해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다리오 왕 제 이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이었더라”(15절).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초하루에 떨어졌었고(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24일이라고 했으니 23일 만에 저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갑자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실 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서울교회 화요 정오음악회 시작된다

## 5월4일(화)부터 2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정오(12시) 본당에서

지난해 말 교회 설립 기념일에 파이프 오르간을 봉헌한 우리교회는 오르간을 주일예배 시간에도 사용하고 평일에는 오르간 연주자(대학졸업 후 4년 이상 국내외에서 수학한 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정회원)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사회를 위해 공개연주회를 갖기로 당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교회는 오는 5월부터 한 달 간 매주 화요일 정오(12시)에 총 4회에 걸쳐 화요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화요음악회에서 연주하게 될 연주자들은 5월4일-강민정 선생(서울교회 1부 오르가니스트, 한

국종합예술학교 졸업, 독일 Detmold 국립음대 졸업, 나사렛대 겸임교수),

5월11일-최주용 선생(이화여대 졸업, 독일 Stuttgart 국립음대 졸업),

5월18일-정경미 선생(연세대 졸업, 파리 고등음악원 졸업, 온누리 교회 오르가니스트),

5월25일-김정은 선생(서울신대 졸업, 독일 Freiburg 국립음대 졸업)등이다.

성도들은 화요음악회를 훌륭한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위의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 4월 성경통독자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매월 셋째 주일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4월중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한다.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는 교회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을 기념으로 드린다. 4월중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2독〉 김정애 집사(1교구) 유후자 권사(5교구) 배영애 권사(7교구) 김현주 권사(8교구)

〈1독〉 하정자 권사(1교구) 서경학 집사(1교구) 강운숙 집사(1교구) 김순자 권사(9교구) 김복승 집사(13교구) 양정실 집사(13교구)

# 영어성경 전권을 필경하다

## - 이영숙 권사(7교구)

이영숙 권사(이영기 장로 부인)가 친구약 성경 전권을 영어로 필경하여 듣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 권사는 지난해 성경암송대회에서 영어로 암송하여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준바 있다.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서울교회를 만들자.

# 4기 찬양대 양성반 수료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3월7일(주)에 시작하여 7주간 과정으로 진행되었던 4기 찬양대 양성반의 수료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찬양대 양성반은 4기 수료생까지 약 140여명의 찬양대원을 배출한 바 있으며 수료자들은 현재 1,2,3부 찬양대원, 수료1,2부 찬양대원 그리고 갈렙 찬양대원으로 소속되어 봉사하고 있다.

이번에 수료하는 4기 찬양대 양성반 수료생들은 모두 34명이며 수료와 함께 각 찬양대에 추천 입단하였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승웅 강애자 김익환 김정미 김혜영 문분순 박명철 서대식 신정순 신홍철 안경순 유관모 이광열 이덕희 이소명 이윤영 이은자 이정남 이준수 이태승 임민철 임인숙 정명숙 정수환 정애신 정진영 조동완 최규초 최영란 최 인 최태경 최향숙 한달전 황정욱

한편 제5기 찬양대 양성반 7주 과정은 4월25일(주)개강하여 6월6일(주)까지 7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 금주의 성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삼감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15:20)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1 Corinthians 15:20)

### 민민에게 전도

# 12차 KIMCHI 세미나 참가국을 위하여 기도 합시다

## -미안마 편-



“저는 우리나라 미안마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이곳(필리핀) 도서관을 다 뒤져보았 습니다만, 미안마에 대한 책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안마가 세계적인 기억 속에서 이미 잊혀진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신학을 위해 필리핀으로 간 미안마 출신 van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항공으로 입출국이 가능할 정도이다.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데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외국기업도 투자를 기피하고 수출 역시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 통제 경제체제를 고수한 결과 생산성 저하, 높은 실업률, 암시장의 성행으로 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고 있으며, 넓고 기름진 삼각주의 덕에 한때 미곡생산 1위를 자랑하던 쌀농사는 국영체제의 부작용으로 수출은커녕 자급자족이 어려운 정도가 됐다. 특히 굶주린 사람들 중에는 한국으로 이주해 이주노동자들로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폐쇄정책은 선교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사정부는 전통종교인 불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면서 외부 종교인 기독교는 탄압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기독교인은 승진이 불가능하며, 불교로 개종하거나 기독교치녀와 결혼해 아내를 불교로 개종시키면 승진이 보장된다.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의 반입 및 출판이 금지되고 있으며 선교사들의 입국도 허가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경험이 있는 미얀마인들은 서양문명에 대한 거부감이 극심해 구원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전 인구의 86%가 불교를 생활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미얀마 선교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왔으나 아직 기독교인의 비율은 3~4% 밖에 안 된다. 135개나 되는 종족마다 언어가 다 다른데 비해 성경은 9개 언어만이 번역됐고,

인쇄술 부족과 정부의 검열로 인해 제한을 받으며 가격이 비싸서 서서보급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교회, 공식 승인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 등 여러 교회가 곳곳에 있고, 필리핀 극동방송에서 복음방송을 내보내어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고 있다.

우리 모두 사회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12차 김치세미나에 초청된 다섯 분의 목사님들을 위해 은 교회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고은실(편집부)



한반도의 3배나 되는 국토를 가진 미안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83년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미안마의 존재가 일반인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을 따름이다. 이는 미안마식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군부 독재정부의 폐쇄정책 때문이다. 이는 외부세계와의 연결선인 인터넷이 국가통제를 받고 있어 전인구 중 약 0.007%만이 e-mail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국경 주변국가조차도 육로접근은 어렵고 오직



장로가정 탐방 - 김영준 장로가정 편

# 너 하나님께 이끄러

김영준 장로님은 1945년 황해도 송화에서 사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나 1.4후퇴 당시 부모님을 따라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 김 장로님은 3세 때 66권 성경 목록을 모두 외워 교인들 앞에서 독창을 했던 영특한 아이로 전도사이셨던 어머니 신앙을 본받아 3대째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

91년 진리를 따라 서울교회로 온 김영준 장로님은 94년 집사 안수를 받고 96년 장로 장립을 받으며 그간 교회 학교 부장과 찬양대 대장으로, 또 제직회 서기로 교회를 섬기다가 올해 장로 안식년을 맞으며 임마누엘 찬양대 남성 파트의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주)한국유리에 25년간 근무를 했고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교문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주)한국유리에 근무할 때 창업주인 최태섭 장로님을 가까이 도시며 최 장로님께서 섬기는 교회의 당회를 목숨처럼 여기시는 모습을 보며 자신 역시 그렇게 장로 직분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했다.

집안 어른의 중매로 만난 박태희 권사와는 78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건축학도인 승민과 이제 막 제대한 승찬 형제를 두고 있다. 성악을 전공한 아내 박태희 권사는 찬양대 양성반의 부감으로 평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은 큰아들 승민과 함께 임마누엘 찬양대를 섬기고 있다. 김 장로님은 자신의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기도로 힘이 되어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신앙의 동반자인



아내가 늘 고맙기만 하다.

군 시절 상관이 주는 술을 마시지 않아 총대로 맞은 적이 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상관의 인정을 받아 사병들을 인솔하여 부대 밖에 있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다녔노라는 김 장로님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대하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0)는 말씀으로, 성령에 대하여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갈 5:16)는 말씀으로 신앙의 지표로 삼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 특히 근래에 들어 오직 성령을 좇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황혼기에 접

어든 이때 이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므로 삶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안식년을 맞고 있는 지금 김 장로님은 돌아보니 온통 부족한 것 뿐이었다고 말한다. 목숨을 다해 충성하지 못했고, 더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아쉽던지. 이렇게 안식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즈음 김 장로님은 나름대로 교회 구석구석을 돌보고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살피며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신앙의 도약을 이루리라 다짐해 본다.

김영준 장로님 가정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끄러’, 이는 김 장로님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은 평생의 모습이기도 하다.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0)의 말씀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자녀들과 잠깐 말씀을 많이 읽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친다.

김영준 장로님은 요즘 새삼스레 참 목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이 교회에 뼈를 묻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 (허숙 (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하나원 방문

## 탈북 동포들과 함께 한 시간...

경기도 성남 부근 산자락에 위치한 하나원 본원은 북한을 탈출해 귀순한 여성들이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받는 곳이다. 이 곳은 여성들만 별도로 코아 분원에서 합숙교육을 한다. 지난주 토요일(10일) 서울교회 바울선교회와 루디아 여전도회 회원들, 디아스포라부 교사들, 그리고 대학부 학생 등 30여 명은 사선을 넘어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원 본원을 방문했다. 얼핏 보면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100여 명의 탈북 여성들은 반가움과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방문팀을 맞이해주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 이규정 목사님, 방문 시간 내내 따뜻한 미소로 봉사하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성도들, 탈북자들의 사경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부 교사들, 그리고 은혜로운 성극을 보여준 대학부 젊은이들이 2시간여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탈북 여성들의 마음 문은 조금씩 열려갔고, 어느새 까르르 하는 웃음이 실재없이 터져 나오며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로 바뀌어 갔다.

특히 대학부 김성환 학생 등 6명은 뮤지컬 형식의 성극을 선보였는데 하나님에 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이 죄악의 유혹에 빠지는 과정,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돌이키는 모습, 마침내 인간이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일련의 과정을 담은 무언극이었다. 언어와 문화가 많이 다른 것을 감안해 대사를 전혀 하지 않는 무언극을 선보인 것인데, 탈북 여성들은 오히려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 없었던 듯 큰 박수를 보냈다. 손재영 전도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퀴즈 맞추기 시간에는 비교적 쉬운 문제구성에도 루디아 여전도회와 바울선교회가 마련한 푸짐한 선물이 제공되면서 문제를 맞히기 위한 열띤 각축장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탈북자들 가운데는 중국에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대략 60-70%가 됩니다. 교회로 오려는 탈북자들이 비교적 많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들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는데다 남한에서도 생활에 하루빨리 적응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모두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저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고, 자주 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들은 하나원에서 두 달 가량 교육을 마치고 남한

사회로 흩어져 각자 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이 서울교회로 나오거나 혹은 다른 교회로 출석하더라도 장차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길 기약하며 서울교회 방문단은 이들의 아쉬운 작별인사를 뒤로하고 하나원을 나섰다.

취재: 김민철 사진: 오주명 (편집부)

### 제4기 단기선교팀 첫모임

4월 22일(목) 오후 7:30 503호

오는 8월중에 방글라데시로 파송받아 10일간의 선교활동을 펼치게 될 제 4기 단기선교팀의 첫 모임이 4월 22일(목) 오후 7시30분 503호에서 열린다.

제4기 단기선교팀에 지원한 모든 이들은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며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 사랑부 장기근속교사 시상

사랑부 교사로 12년간 헌신 봉사해온 이관모 집사, 서순영 집사, 박순자 권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가 수여하는 표창장을 장에인 주일(18일) 인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받게 된다.



장애우의 날 특집  
- 사랑부교사의 봉사현장을 가다

#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4월 20일은 장애우의 날이다. 사랑부에서는 이날을 맞아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찬양에 배 시간과 이들과 관련된 10여개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찬양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들러 본 8층 식당에는 4명의 교사가 미리 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11시 30분에 벌써 반찬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다. 잠시 후 노란 조끼를 입은 교사들이 휠체어를 밀며 식당으로 들어섰다. 교사와 학생은 하나의 지체가 된 듯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파스한 밥과 국이 교사들의 손길에 의해 옮겨지고 이어 각 교사의 기도도 식사가 시작되었다. 심하게 음식을 흘리는 어린 학생의 목에 턱받침을 걸어주는 교사는 여자 대학생이었다. 한사코 이름을 밝히기를 마다하는 이 교사는 학생들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마음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부모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대하며 이들이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한편에서는 반찬을 작게 잘라 밥 위에 얹어주거나 흘린 음식을 닦아주는 교사들이 저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승우 집사(사랑부 부장)는 지난 12여 년간의 세월 동안 사랑부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가장 먼저 이들의 믿음이 팔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졌고, 교사들 역시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했다.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는 게 꿈인 이옥동 고등부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활 시설과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주몽 재활원에 있으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많은 걸 깨닫게 되었고, 또한 교회에 오면 성도와의 교제가 있어 너무 좋다고 한다.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때마침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금 일찍

교사들은 식사가 끝난 후 주변을 정리하고 휠체어를 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인원을 점검한 후, 다시 교회 대형버스로 왕복 2시간의 거리를 다녀와야 한다. 재활원과 나사도의 집에서 데려오고 다시 데려다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랑부에는 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한다. 또 함께 공부를 하거나 식사는 여자 교사들도 할 수 있지만, 차에서 휠체어를 내리거나 집안까지 이들을 옮기는 일은 특히 젊은 남자 교사들의 손길

을 빌려야만 한다. 때문에 사랑부에서는 대청부의 뜻있는 자원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한 성도가 흰 봉투를 가지고 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얼마의 후원금을 놓고 갔다. 가끔씩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후원하는 손길이 있다며 사랑부 교사들은 사랑은 받아본 자가 사랑도 하는 것 같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랑부 교사들의 한결 같은 소망은 이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건강해지는 것이다. 선천적이거나 혹은 후천적사고로 인해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 장애우들과 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유명희(편집부)



### 등정

- 이종윤 목사: 20일(화)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회 이사회에 참석한다.
- 이찬: 믿음 인터리어 (12교구 이인수 집사, 나기태 집사) 분당구 경자2동 금곡프라자 105호 (전화 031-711-3893)
- 개업: 샤론 플라워샵 (12교구 나양빈 집사) 경기도 분당구 경자2동 127-1 금곡프라자 105호 (전화 031-711-3895)
- 이사: 안영원 집사, 유승원 집사 (11교구) 송파구 가락2동 삼환@ 9-704 (전화 400-8465)  
전용순 권사(12교구)수지읍 풍덕천2동 태영@ 107-1704 (전화 031-307-0417)  
김한성, 이은아 성도(12교구) 용인시 상현동 870 서원마을3단지 아이파크 305/1901 전화 031) 261-3740
- 주간 식당봉사: 당회원(4월18일) 권사회(4월 25일)
- 금주의 식사: 금주의 식사, 오길택 집사(박정섭 권사) 가정 (부친상을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보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 30분</li> <li>●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li> </ul>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 30분</li> <li>●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li> </ul>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산나넷 - (<a href="http://hosanna.tv">http://hosanna.tv</a>)</li> <li>● 기독교 TV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li> </ul>

천국일군 양성 - 찬양대 양성반을 수료하며

## 찬양! 두렵지 않습니다

### 최인성도(2교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엡 5:19)

눈도 귀도 목소리도 좋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 나이에 신입으로 찬양대에 참여하려니 아무리 지엄하신 목사님의 명령일지라도 오랫동안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돌보기를 쓰고도 가물거리는 악보도 문제고, 두 마디조차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호흡은 어쩔 것이며, 무엇보다 귀가 인식하는 소리와 입에서 내는 소리가 달라서 #이 되거나 b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음에서는 '백사리' 까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는 속상한 지휘자들이 내뿜었던 재담까지 생각나서 더욱 움츠러든다. "집사님, 은혜대로 부르지 마시고 권사님, 믿음대로 부르지 마시고 제발 악보대로 불러주세요."

하지만 어저래. 고백하건데 처음 찬양대 양성반에 등록할 때만 해도 여러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려니 하는 마음에

서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런 통과의를 꼭 치려야하나, 하며 중얼대기도 했다.

그러나 첫날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은 음악대학 4년 과정의 엑기스를 7주 동안 전수받으실 것입니다."라는 장로님의 말씀이 실감났다. 찬양대의 역사와 기원, 소리를 내는 방법, 복식호흡 익히기, 두성 발성법, 비장 공명법, 악보 읽기, 표기법 익히기, 계명창 방법, 지휘를 보는 법, 성부 조성 및 나누기 등 돌아보니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도 배웠다.

군더더기 없이 알찬 내용도 유익했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대한 말씀이 더욱 마음에 닿았다.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시는데,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의 겸허한 고백에는 말 이상의 힘이 있었다.

지난 7주 동안 '하오의 601호'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과 배우는 사람의 감사가 넘쳐났고, 이제 찬송, '두렵지 않아' 로 수료의 마침표를 찍으려한다.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학교 학생이 되고 전도대원이 되도록
4.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